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FinanceYahoo: 12월 미 일자리 채용 공고 예상보다 감소
- WSJ: 시장은 관세 문제를 저평가하고 있나?
- Bloomberg: 트럼프 관세, 식품 물가 상승할 수도

[미국 금융]

- Bloomberg: 시카고 연준 총재 “트럼프 관세 정책이 연준 금리 인하 늦출 수 있어”

[미국 관세]

- WSJ: 중국, 미국에 보복 관세... 유가 하락
- Bloomberg: 어떤 미국산 제품이 중국 관세에 적용되나
- WSJ: 중국의 관세 보복, 아직 미국에 피해 없어
- WSJ: 유럽 “미국과 관세 협력 원하지만, 싸울 준비도 돼 있다”

[오일]

- CNNBusiness: 미 관세, 에너지 가격 올린다
- Bloomberg: 미·중 무역 전쟁 시작, 유가 상승 가능성 줄어

[글로벌 경제]

- Bloomberg: 태국, 미국산 수입 늘린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스포티파이, 구독자 수 증가
- Bloomberg: 펩시, 북미 시장 매출 줄어든다
- TechCrunch: OpenAI, 한국 카카오와 파트너십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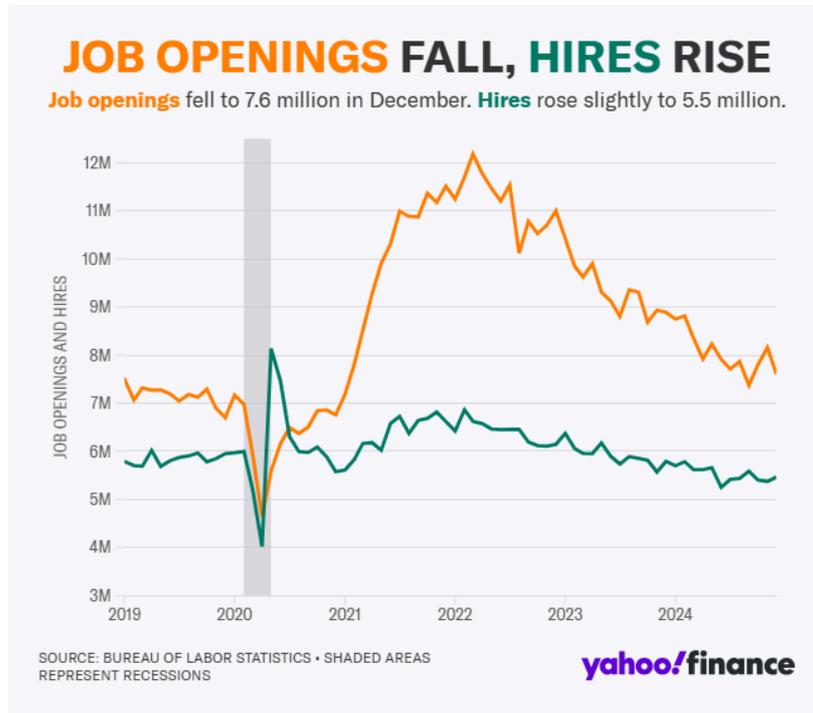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qh

[미국 경제]

FinanceYahoo: Job openings hit lowest level since September **12월 미 일자리 채용 공고 예상보다 감소**

- 투자자들이 노동시장의 둔화 징후를 면밀히 지켜보는 가운데, 12월 미 공고는 전문가 예상치보다 줄어 지난 9월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 화요일 연방노동처의 자료에 따르면 미 일자리 공고는 지난 12월 말에 760만개를 기록했다. 전월인 11월 815만개보다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0월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었다.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Nancy Vanden Houten은 “고용이 둔화되고 있지만, 해고 속도도 줄어 일자리 성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FinanceYahoo 기사

WSJ: Are Markets Underestimating the Tariff Problem? 시장은 관세 문제를 저평가하고 있나?

-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명령했다가, 국경 문제와 펜타닐 마약 퇴치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1달간 유예를 부과하기로 했다.
- 이 같은 정책 변화로 어제 월요일 중반부 S&P500과 Stoxx Europe600 등 주가와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멕시코에서 차량을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는 포드, GM의 주가나 캐나다 달러, 멕시코 페소도 반등했다.
- 금융시장은 트럼프가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 같은 이슈에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관세를 위협용으로 사용한다는 낙관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 그러나 낙관주의가 너무 안일하다는 입장도 있다. 한 달 후에는 긴장 완화 정책이 끝나고 실제로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Trump Tariff Plan Risks Upending Trade, Stoking Food Inflation 트럼프 관세, 식품 물가 상승할 수도

-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 부과를 계속 추진하면 식품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들 국가는 미 농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신선 농산물 수입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 옥수수과 돼지고기의 가장 큰 수입국이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이다.
-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해외 관련 분야 판매를 제한하고, 에너지와 농부들의 비료 비용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식료품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Goolsbee Says Trump Policies Could Slow Fed's Rate Cutting**

시카고 연준 총재 “트럼프 관세 정책이 연준 금리 인하 늦출 수 있어”

- 시카고 연준 총재인 Austan Goolsbee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준이 더 신중하게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 연준이 더 금리 인하에 더 조심스럽게 신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그는 연준의 관세 여파 측정이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관세]**WSJ: Trump Tariffs: China Hits Back With U.S. Penalties**

중국, 미국에 보복 관세... 유가 하락

-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 중국 10% 관세는 그대로 시행되었다.
- 중국은 보복으로 2월 10일부터 미국 석탄과 LNG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 제한, 구글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의 관세로 미 에너지 수출이 타격을 입었다. 오일, 석탄, LNG, 농기계류 등이 영향을 받았다.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 후 미 원유 선물은 배럴당 71불 아래로 떨어졌다.
- 트럼프는 “시작에 불과하다. 양국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에 상당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These Are All the US Goods China Is Targeting With Tariffs

어떤 미국산 제품이 중국 관세에 적용되나

- 중국은 미국산 석탄과 LNG 등 8개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산 원유, 농기계류, 픽업트럭, 큰 배기 차량 등 72개 품목에 10% 관세가 부과됐다.
- 자세한 사항은 기사 연본의 리스트 참고 바람.

Appendix:

1. List of goods subject to 15% tariff increase (8 items)

Tariff Code	Name of Product
27011100	Unformed anthracite
27011210	Coking coal
27011290	Other unformed bituminous coal
27011900	Other unformed coal
27012000	Briquettes, coal balls and similar solid fuels made from coal
27021000	Unformed lignite
27022000	Formed lignite
27111100	Liquefied natural gas

Bloomberg 기사

WSJ: Why China's Retaliatory Moves Aren't Very Painful for the U.S. So Far

중국의 관세 보복, 아직 미국에 피해 없어

- 미국에 대한 중국의 관세는 상대적으로 상징적인 면이 강하고 실질적으로는 피해가 크지 않다.
- 중국이 미국 에너지의 주요 수입국이지만 미국의 원유, 석탄 수출업체들은 새로운 구매국을 찾기 어렵지 않다. 특히 이번에 중국의 관세 품목에서 대두가 빠졌는데 이는 첫 트럼프 행정부 때 양국 간에 중요한 품목 이슈였다.
- 중국이 수출 통제 품목에 여러 종류의 금속류를 추가했지만, 이는 제한적인 것일 뿐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진 않았다. 미국은 반도체와 미사일 시스템 등을 만들기 위해 여러 광물을 사용하지만, 어떤 품목들은 중국산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
- 중국이 반독점 혐의로 구글 등 미국의 2개 회사에 조사를 벌인다고 하지만, 구글의 경우 중국에서 크게 운영 시스템 갖고 있지 않다. 지난 2010년 이후 중국에서는 구글의 검색 엔진, 소비자 인터넷 서비스 등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WSJ 기사

WSJ: A U.S.-EU Trade War Would Threaten World's Richest Economic Relationship

유럽 “미국과 관세 협력 원하지만, 싸울 준비도 돼 있다”

- 유럽의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시행과 관련해 “우리는 보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협력을 선호한다.”라고 말했다.
- 트럼프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관세 시행을 발표하면서 유럽 국가들도 그의 관세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우리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 트럼프는 유럽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3천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지난주 밝혔다. 미국 관련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 대한 미국의 상품 적자는 작년에 2천1백40억 달러이며, 미국의 유럽 수출액은 3천4백20억 달러에 달했다.
-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무역 관세에서 공격을 받는다면, 유럽은 강력한 파워로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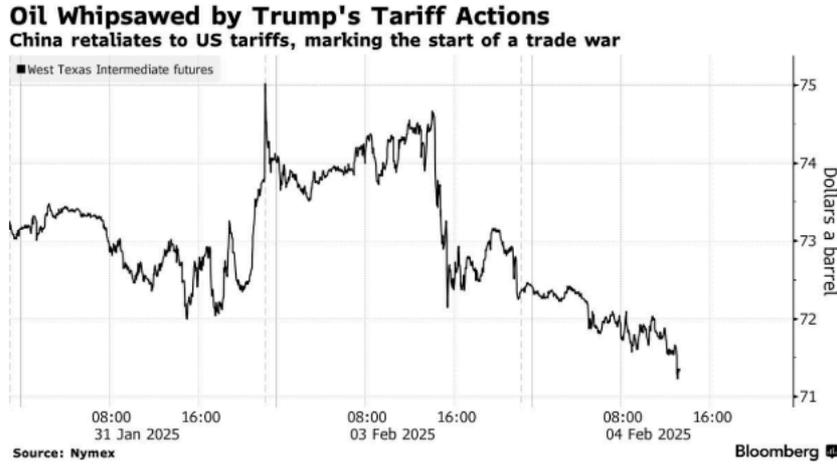
WSJ 기사

[오일]

CNNBusiness: Tariffs will lift US gas prices within days

미 관세, 에너지 가격 올린다

- 어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시행을 연기했다. 해당 관세가 시행되면 휘발유와 에너지 제품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월요일 초 휘발유 도매가격이 갤런당 8센트 올랐다. 디젤 가격은 갤런당 10센트씩 상승하고 있다. 월요일 원유 선물은 2%에서 3%로 상승했다.
- 관세 시행 후 캐나다와 멕시코산 원유 수입이 줄면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어 트레이더들이 미리 물건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 Lipow Oil Associates의 분석가 Andy Lipow는 “석유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이 곧 시작될 것이다. 5~7일 이내에 주유소에서 변화가 보일 것이다. 지역에 따라 갤런당 최대 15센트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Bloomberg: Oil Erases 2025 Gain as US and China Lock Horns in Trade Dispute

미·중 무역 전쟁 시작, 유가 상승 가능성 줄어

- 원유 선물은 추운 겨울과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공급 감소로 처음 몇 주 동안 상승했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글로벌 에너지 수요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는 올해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10% 관세 조치 발표 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배럴당 71달러까지 하락했다. 중국도 미국산 석탄과 LNG에 15% 관세를, 석유와 농업용 장비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 증권사 PVM의 분석가 Tamas Varga는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다. 관세는 신속하게 부과되고 철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 문제로 인한 수요 감소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Thailand Weighs Imports of More US Goods to Cut Trade Surplus

태국, 미국산 수입 늘린다

- 태국이 미국산 에탄과 농산물 등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서 트럼프의 관세 표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다. 태국은 2024년 북미 국가와의 무역에서 약 35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었다.
- 태국 정부는 태국 석유화학 기업들에 미국산 에탄 구매량을 최소 100만 톤 이상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에탄 100만 톤은 약 2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 태국 총리 비서실장은 “태국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미국과의 협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미국 또한 동남아시아에 동맹이 필요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Spotify Beats on Subscribers, Records First Annual Profit
스포티파이, 구독자 수 증가

- 오늘 화요일, 스포티파이가 월간 구독자 수가 6억7천5백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료 고객도 2억6천3백만 명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구독자 수 증가였다.
- 스포티파이 CEO Daniel EK는 2024년 약 11억4천만 유로(12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해 스포티파이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이 42억 유로, 매출 총이익은 3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스포티파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올해 초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시청 횟수로 아티스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PepsiCo Sees North American Slowdown as Consumers Scale Back
펩시, 북미 시장 매출 줄어든다

- 펩시가 북미 시장에서 기대 이하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2025년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0.2% 감소한 27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주요 북미 시장에서 프리토레이, 퀘이커, 음료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도 매출이 감소했다. 다른 해외 시장에서는 판매량이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TechCrunch: OpenAI partners with Korea’s Kakao after inking SoftBank Japanese JV
OpenAI, 한국 카카오와 파트너십 체결

- OpenAI가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다. 어제 월요일, OpenAI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합작회사 SB OpenAI Japan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화요일에는 한국 카카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 OpenAI와 카카오는 3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OpenAI를 사용하는 한국어 AI 비서 ‘카나나’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톡과 OpenAI 기술을 통합할 예정이다.
- OpenAI의 CEO 샘 알트만은 “한국은 매우 인상적인 시장이다. 에너지, 반도체, 인터넷 등 AI를 적용하기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말했다.
- 알트만은 카카오 외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영진을 만나는 등 다른 한국 주요 기술 대기업과도 교류하고 있다.

TechCrunch 기사

[보고서]

**'트럼프 관세전쟁' 멕·加 한숨돌려...대중 관세 발효로 미중은 충돌
 멕시코·캐나다 국경통제강화 약속받으며 시행 전날 전격 "한달 유예"
 대중국 관세는 일단 발효...中 '보복관세' 예고일인 10일이 분수령
 '관세 무기화'·'상대 극한 압박해 목적 달성' 등 집권 2기 기조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광풍'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4일(현지시간) 시행키로 예고한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 대상 관세 중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기로 3일 전격 발표한 반면 대중국 관세는 '반전' 없이 4일 0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앞마당'에 해당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거친 관세 압박으로 일단 불법이민과 마약 단속 면에서 양보를 받아냈지만 중국과는 일단 강대강으로 맞선 형국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